목포시의회 초선의원 활동 두드러졌다

22명 중 14명이 초선…우려 딛고 시정 질문·조례 제정 맹활약
대양산단 조사특위·3개 연구동아리 결성 등 주도적 역할 성과

제11대 목포시의회 개원 1년을 맞아 고유 권한인 집행부 견제 감시와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선의원들보다 초선의원들이 더 의욕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019년 1차 정례회 모습.

개원 1년을 맞아 제11대 목포시의회의 시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입법 활동을 분석한 결과, 초선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22명 중 14명의 초선의원이 대거 시의회 진출하면서 우려가 많았으나 오히려 다선의원들보다 초선의원들이 패기를 살려 맹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9명(중복 포함)이 시정 질문을 펼쳤으며 입법 활동인 조례 제정은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별로는 기획복지와 도시건설이 각각 23건(시정질문+조례제정), 관광경제는 16건으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했다.

의원 개인별로는 김근재 의원이 시정질문 2회, 조례 제정 6건 등 모두 8건으로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이어 최홍림(7건), 박용(5건), 백동규·이형완·김수미·장송지(각 4건)의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최홍림, 백동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초선이다. 이는 다선의원들보다 초선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했다는 의미다.

여기에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의원은 비례대표임에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약진은 역대의회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정질문과 조례 제정이 한 건도 없는, 한마디로 고유 권한을 포기한 의원도 2명이나 됐다. 2명 모두가 다선의원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와 함께 시정 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도 7명이나 됐다.

이에 반해 대양산단 조사특위가 결성돼 4개월 동안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채택했고,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돼 '마중물'(도시재생 연구), '반딧불'(관광정책 연구), '등대'(도시정책 연구) 등 3개의 연구 동아리를 결성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친 점은 11대 의회 성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김휴환 시의회 의장은 "초선들이 대거 11대 의회에 진출해 출범 당시만 해도 시민들의 염려가 많았지만 기우였다. 초선들이 소신을 갖고 활동한 결과라고 본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지방채 발행과 조례 제정, 특위와 연구 동아리 활동 등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 민원실과 민원인 주차장 조성 등 민원 해결에 방점을 뒀다"면서 "다가오는 2년 차부터는 의원들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트브 등 미디어를 활용해 시정질문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36호.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5척 취항식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지난 13일 목포 북항 배후부지에 있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서 국가어업지도선 5척의 취항식을 가졌다.

취항식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전라남도지사, 목포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해양수산 기관·단체·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취항식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의 건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명패 수여, 건조 유공자 표창 및 취항 기념 버튼점화식과 새로 건조한 무궁화36호 지도선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 2000t급 4척(무궁화35·36·37·38호)과 970t급 1척(무궁화14호)은 국내 조선경기 활성화 및 불법어업 외국어선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274억 원을 들여 건조했다.

특히 2000t급 국가어업지도선(길이 90m, 선폭 14m, 최대속력 18노트)은 어업관리단 최대 규모이다. 최첨단 항해설비를 갖추고 고속단정 14m급 1척, 8m급 2척을 탑재하고, 최대분사거리 110m의 방수포 2기를 갖추고 있다.

또 헬기 착륙장과 해상 원격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어업인 등 위급 환자 발생 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970t급 국가어업지도선(길이 71.3m, 선폭 11m, 최대속력 17.5노트)은 8.5m급 고속단정 2척을 보유하고 있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 단장은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으로 국내어선의 안전조업과 외국어선으로부터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감시해 어업질서 확립 및 어업주권 수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옥암동 체육센터예정부지 매각 재추진…내달 입찰공고

목포시가 용도 폐지된 옥암동 체육센터 예정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재추진한다.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건립 중인 종합경기장 재원 마련을 위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옥암동 1039-4,5번지 2필지를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지난 1996년 6억여원의 체육진흥기금을 들여 매입한 체육센터 예정부지는 당초 시체육회 등이 입주할 공간이었으나 그동안 음식점 등으로 활용돼오다가 2015년 9월에 용도 폐지된 후 매각이 의결됐다.

이후 지난 2016년 11월 예정가격 21억 3240만원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졌지만 3차례나 유찰되면서 추후 적절한 시기에 재매각키로 결정됐었다.

이에 목포시는 이 달 중으로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재실시한 뒤 다음 달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선호 목포시 교육체육과장은 "체육센터 부지 매각대금을 종합경기장 건립 재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종합경기장 건립 후 시체육회와 종목단체 입주를 전제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속도 낸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주차난 해소 3곳에 주차장 100면 조성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항거리 다목적 광장 인근에 9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목포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내 3곳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총 100여 면에 달하는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동 1가 5-1번지 일원 개항거리 다목적 광장에 이달 말까지 주차장이 조성된다.

이곳의 주차 면수는 9대로, 이미 공사가 완료된 여행자 쉼터 주차장 5면과 연계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또 상락동 1가 10-3번지 일원 어울림 플랫폼에도 대형차 12대와 소형차 28대 등 총 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마련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8월부터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영화 1987로 유명관광지로 떠올라 관광객들이 발길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금화동 7번지 일원 연희네 슈퍼 인근에도 신규로 주차장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총 47면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영권 목포시 도시재생과장은 "보상 협의가 완료된 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3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8월까지 이주를 마치고 9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이들 3곳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거동 불편 노인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최근 지자체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집까지 찾아가 해소해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동 목욕탕과 빨래방이다.

목포시는 오는 8월부터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1만357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개시한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등 대형빨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선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 MOU를 체결한 이후 차량구입에 필요한 9300만원 중 현재까지 5400만원이 모금됐다.

여기에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은행 4000만원과 지역건설사 2곳에서 1500만원 등 5500만원이 기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탁이 완료 되는대로 이달 말까지 차량 구입을 마치고 7월부터 빨래방을 개소해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오형순 목포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빨래방 차량은 목포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인건비는 자활근로 민간 위탁비 민들레사업단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라면서 "찾아가는 빨래방은 세탁은 물론 소외계층들의 안부도 살펴드리는 이웃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